

무너진 ‘투포트’ 정책 〈부산·광양 양항 체제〉 광양항 ‘넘버 3’ 전략

물동량 2위 인천항에 내줘

올 상반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인천항에 앞섰던 광양항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가 뒤집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충청권이라는 물류거점을 지닌 인천항은 올 상반기 길이 1600m의 인천신항 6선석이 본격 운영된 반면 광양항은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1선석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기반시설에서의 격차가 빚어낸 결과다. 전남도는 올해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3선석을 추가 설치하는데 내년 국비 108억원을 확보했으나 ‘2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광양은 191만1000TEU (1TEU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한 반면 인천은 195만3000TEU로, 4만2000TEU 앞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광양은 195만4000TEU, 인천은 193만7000TEU를 처리해 광양항이 앞섰

다. 광양은 전년도에 비해 2.2%p 감소한 반면 인천은 0.8%p가 증가하는 등 광양은 처리량이 줄고 인천항은 꾸준히 늘면서 올 하반기부터 2위와 3위가 뒤바뀔 것이다.

올해 10월 한 달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광양이 18만7000TEU, 인천이 21만4000TEU였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광양이 212TEU로 인천(196TEU)보다 앞섰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요 기반산업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의 수출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천의 경우 베트남·중국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은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한 163만TEU를 기록하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세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 10월 광양항과 목포항의 전체 물동량은 각각 2131만9000t, 183만7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10.0% 하락하는 등 전남지역의 수출 및 연안 화물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ad@kwangju.co.kr

당무거부·탈당...野 ‘소용돌이’

문재인 대표·주승용 최고 전격회동도 성과 없이 끝나

문재인 대표의 주류 진영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진영의 정면충돌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등을 통한 야권재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7일 문재인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무거부에 돌입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와 전격 회동, 당내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 최고위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고를 요구한 혁신 전당대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며, 문-안 동반 퇴진과 함께 당내 중진 인사들과 지역 대표성과 합리성을 갖춘 중진 의원 및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임시 지도부 구성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최고위원직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 최고위원의 사퇴는 사실상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파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성향 의원 15명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구당모임’을 발족, 주류 측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와 주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재차 요구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대담을 드리기가 좀 난감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신당 참여를 적극 제안했다. 또 전북의 조배숙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탈당과 함께 천정배 신당 참여를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가람 1년 ... ‘에너지 수도’ 우뚝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이전해 온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2013년 3월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입주한 이후 지난해 한전 등 14개 기관이 입주를 마친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등 14개 기관 ‘동지’... 인구 1만1000명 거주 신도시

지가 상승률 전국 1위 ...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해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동지를 튼 나주시가 진화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는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빛가람에너지밸리가 조성되는 등 호남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7월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 선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는 인구가 1만1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변모했고, 연말까지 1만3000여명이 전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3월 공

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입주한 이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등 모두 14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이전기관 수(16개)와 이전 인원(6763명)이 가장 많다. 면적은 733만㎡로, 전북혁신도시 990만㎡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이전기관 중 현재 인터넷진흥원(2016년 이전 예정)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 6128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주거시설도 2014년 한전 이전 후 2255호에서 4252호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한전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면서 나주시의 올 공시지가 상승률(1~9월)은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공기관이 옮겨오기 전 49개에 불과했던 편의시설도 지난해 12월 한전 이전 후 114개로 늘었다. 지난 9월에는 389개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

■ 빛가람 혁신도시 1년

인구	1만1000여명
이전기관	한전 등 14개
이전인원	6128명
주거시설	4252호
편의시설	389개
학교	14개교
의료시설	6개소
생활시설	610개소
지방세	69억
공시지가 상승률	4.33% (전국1위)

다. 버스 왕복도 66회에 불과했으나 172회로 늘었으며 지방세는 9억원에서 69억



원으로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입주를 마치게 되면 명실상부한 ‘빛가람 시대’를 맞게 된다.

정주여건 역시 점차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30일 현재 주택공급 2만호, 학교 14개교, 빛가람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2개소, 의료시설 6개소, 생활시설 6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최대 민원인 호혜원 악취문제도 해결돼 정주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은 “이주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키우고, 기존 산업과도 연계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겨울장마에 공사장도 ‘休~’ ▶ 7면

블루오션 다도해 - 신안 흑산도 ▶ 18면

호남 최대 부수·24면 발행

전남대학교, 이제 세계와 경쟁합니다

- 대학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15, 교육부)
- 세계대학평가 국내 10위, 세계 384위 (2015, 세계대학랭킹센터)
- 대학교육의 질 평가 최상위 (2015, 중앙일보)
- 취업률 거점국립대 3위 (2014, 대학알리미)

- 국책연구과제 수주 2,600억원 돌파 (2013-2015)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수 지방대 1위 (2014, 국가자료)
- '아시아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2015 AABI Awards)

여수캠퍼스, 자부심은 커지고 힘은 강해졌습니다



여수캠퍼스